



6학년들이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제천간디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지 않으니 다들 뭔가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봅니다. 평소에는 성숙하고 어른스럽던 6학년들이 교복을 입으니 원래 자신들의 나이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등학생 같네요! 보기 좋습니다. 그래도 간디학교 학생들이니까요. 교복을 입어도 꼭 노는 언니 오빠들 같네요... 어쨌든 보기 좋습니다!

-편집장 김민석(4학년)



차례

여는 글 2 매드맥스: 분노의 편집장

1부 반가워요 후원인 5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배움 속으로 9 저녁 9시엔, 간디 뉴스  
-제천간디학교 사상 최고의 혁명!  
본방 시수하세요-

우리끼리 13 을미년 가을 축제 보고서

2부 특집 20 졸업 특집:  
졸업생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3부 생활관 이야기 30 홈스테이 그들의 이야기

화제의 인물 34 주어를 하지 않으면 주여 요정이 찾아온단다

간썰소 44 간디인 스케줄러 / 초딩 민석이의 일기

기자 후기 51 기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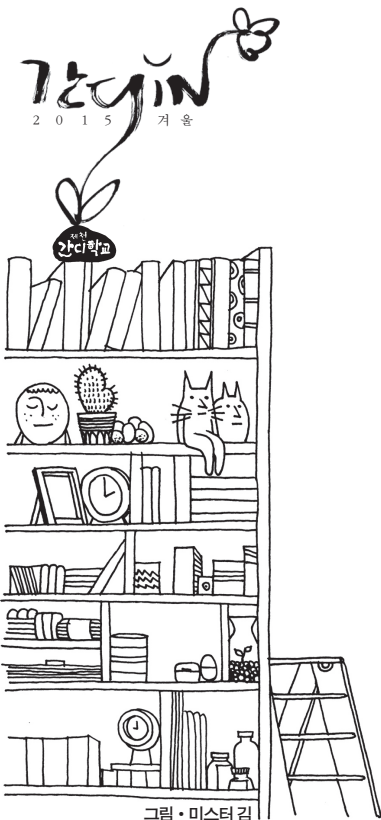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김



# 매드맥스: 분노의 편집장

김민석 편집장(4학년)

저는 지금 겨울 호 여는 글을 쓰고 있지만, 머릿속에선 자꾸만 가을 호를 작업하던 때가 생각납니다. 저번 가을 호 작업 당시 기자들은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취재도 잘 하고 마감일에 맞춰서 기사도 다 보내 줬습니다. 기자를 본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에게는 기자가 기사를 마감일에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바쁜 학교생활과 일상다반사를 함께 해야 하는 기자들에게 마감일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가을 호 때 기자들이 제게 보여줬던 행동들은 굉장히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아무리 드물어도 저는 이번 겨울 호 역시 저번 가을 호 때처럼 기자들이 잘 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을 호를 너무 열심히 한 탓일까요? 이번 겨울 호 작업은 굉장히 더디고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매주 회의 때마다 기자들의 상태는 어디다가 정신을 놓고 왔는지 얼이 빠져 있었고, 표정은 꼭 병든 닭 같았습니다. 그만큼 집중도 못하고 기사 진행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기자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두 개인 기자들은 한 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 보내는, 혹은 두 귀를 막는 스킬(?)을 시전했습니다. 걱정의 마음이 커진 저는 회의 시간이 아닌 학교 일과 중에도 어찌다가 기자들과 마주치게 되면 “기사는 쓰고 있어?”, “취재는 했어?”란 말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이 말을 참 많이 들은 이한슬 기자는 어느 날엔 “알아서 할 테니 잔소리 좀 그만 하라고!” 소리치며 저를 때렸습니다.

기자들의 상태가 이러니 당연히 마감 때까지 기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감일 저의 메일함에는 페이스북 알림과 쿠팡 광고 메일만이 보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3부에 박우제, 이한결 기자만은 마감일에 기사를 보내 줬습니다. 마감일이 한참 지났는데도 기사를 안 보내니, 저는 그전보다 더 악랄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빨리 기사 보내라고!”, “지금 마감일이 지난 지 얼마나 됐는데, 어찌고저찌고.” 마치 빗 독촉을 하는 사채업자같이 지독하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자들의 표정은 약간의 미안함과 ‘아몰랑’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저의 잔소리가 먹혔는지 먹히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감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잔소리의 내용과 소리는 점점 커졌고 잔소리 후에 회의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싸한 분위기에 굴하지 않고 정말 집요하게 기자들을 쫓아냈습니다. 제 시간에 소식지가 나와야한다는 사명감을 다해 기사를 안내는 기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일을 너무 잘한 나머지 어떤 기자는 제가 편집장이 적성이라고도 했습니다.(이 참에 한 번 더 할까요?)

하여튼 이번 겨울호는 저의 지독한 잔소리 속에서 어렵게 탄생했습니다. 사실 잔소리를 하면서 약간의 쾌감도 있었지만 계속 마감이 밀리니 저와 기자들, 일상다반사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계속 늘어지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억지로 쥐어짜면서 기자들은 기사를 쓰고 겨울호를 냈습니다. 마감이 밀렸다 뿐이지 다들 열심히 해 줬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찍일찍 성실하게 해서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치고 피곤한 여정이 끝이 난 거 같아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이번 겨울 호를 끝으로 5학년 김예림, 손채은, 이가원 기자가 일상다반사를 떠납니다. 일상다반사의 안방마님 같았던 기자들이 떠난다니 많이 아쉽습니다. 인터십 나가서도 기죽지 말고 당당히, 즐겁게 살기 바라고 너무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눈물) 그리고 6학년 한별 기자의 졸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 나가서 성공하시면 일상다반사 기자들에게 밥 한 번 시주는 걸로~

이번 2015년도 간디인은 개편이라는 큰 산을 넘었습니다. 개편의 여파로 여름방학까지 반납하면서 여름 호를 냈고, 가을 호, 겨울 호도 지지고 볶으며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기자들 편집장의 잔소리, 마감의 압박감, 게으름, 나태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간디인을 만들었습니다. 다들 고생했고 겨울방학 때 에너지 만땅 충전해서 2016년도 열심히 지지고 볶아 봅시다! 🍷

# 1부: 미녀삼총사

→을미년 가을축제 보고서

→특종! 24시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김예림 이예슬 박성현



# 인생은 한 번뿐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이번 겨울호 1부 기자들이 역대급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떠나요~돌아서~♪ 바로 제주도였는데요. 시원한 바닷바람만큼 쿨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후원자 강치호님을 인터뷰하고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특별한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계신 강치호님의 인터뷰, 함께 볼까요?

Q.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을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돼요!

A.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고, 지인들의 벗이 되고 싶은 강치호입니다(웃음).

Q. 성함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한글 이름인가요?

A. 아니요, 한자 이름이에요. 이를 치(致) 자에 하늘 호(昊) 자를 써서 큰 뜻을 이루고 살라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Q. 제주도에 살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A.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죠. 놀러 오는 사람도 많아요. 매달 한두 명씩은 오는 것 같아요. 많이 올 때는 거의 매주 오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빈부격차가 별로 없어요. 도시에서는 서로 잘난 걸 뽐내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하면 왕따를 당해요. 잘사는 사람도 티를 잘 안 내고, 못사는 사람도 기죽어 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제주도가 외부 경제 상황에 영향

을 거의 안 받아요. IMF 때도 제주도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았을 정도니까요.

Q. 그럼, 혹시 나쁜 점도 있나요?

A. 나쁜 점까진 아니지만, 아무래도 다른 지역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게 조금 불편하죠. 비행기 예약해서 시간 맞춰 다녀야 하니까. 육지에서는 다른 지역 갈 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물가가 조금 비싼 것 정도?

Q. 태어날 때부터 제주도에서 쫓 사신 거예요?

A. 아니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진학 때문에 19살에 육지로 올라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슈퍼 점 납품 일을 몇 년 하고, 그 후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얼마 안 있어서 바둑에 빠지게 됐죠. 그 길로 대학원 때려치우고 17년을 바둑으로 보냈습니다. 선수는 아니고 바둑 공부로 몇 년 보내다가 애들 가르치



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제작년 7월쯤, 부모님이 같이 와서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게 됐어요.

Q. 바둑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셨나요?

A. 제가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장인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던 분이였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눈에 물 다 대 놓으시고 모내기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일만 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갈 수도 있구나 싶었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즐기면서,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해 보고 싶은 거 다 해 보고 죽어야겠다고. 그래서 취미생활로 찾은 게 바둑이었던 거죠.

Q. 현재 하고 계신 일이 렌터카 협동조합이라고 하

는데,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정확하게 말하자면 렌터카 협동조합이 아니라 ‘여행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에요.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업이 렌터카일 뿐이죠. 저희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여행 중에 들었던 비용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Q.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A. 일반 협동조합처럼 조합원들에게 출자를 받아요. 근데 렌터카 사업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매달 출자금만 받는 데도 자본이 모자라요. 그래서 단기 대출이나 담보 등 금융권을 통해서 메우고 있어요. 또 수익이 발생하면 50%는 배당을 하고, 일정 금액 저축과 이자 배당을 해요. 그리고 남은 잉여 자본금으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죠. 렌터카 사업이 끝나면 펜션 사업, 그 다음으로는 다른

관광 사업, 이렇게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렌터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어서, 지금은 펜션 조합원들을 모집해 나가고 있어요. 어제 목은 숙소도 조합에 속해 있어요.

Q. 협동조합 이름인 ‘향원’의 뜻은 무엇인가요?

A. 멀리 가는 향기가 맑다는 뜻입니다. 제 바둑 스승님인 양상국 사범님이 지어 주신 이름인데, 사업할 때 단기간의 이익을 노려서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로 지어 주셨답니다.

Q.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이 일(협동조합)은 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 사회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잖아요? 그렇다 보니 노사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생협이에요. 기독교 쪽 생협이나 썸키스트 등 다양한 모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빈번한 노동의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러다 제작년에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중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게 바로 향원이에요.

Q. 그럼, 혼자서 만드신 거예요?

A. 구상은 혼자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먹고, 자고, 돌아다니고-에 착안해서 계획을 했죠. 그 다음에 지인들에게 물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게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겨서 조합원으로 가입을 했고요. 출자금과 대출 등으로 자본을 모아서 렌터카 사업을 가



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관광 분야로 확장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시작한 건 올해 7월 정도부터고, 지금은 6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어요.

Q. 제주도에서만 운영되는 건가요?

A. 아니요, 전국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밀양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Q.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그럼요. 다만 비조합원의 경우, (다른 곳보다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조합원에 비해서는 비싸게 이용하는 거죠. 또 조합원들은 저렴하게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을 돌려받기 때문에 거의 50%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Q. 조합에서 이사장이신 걸로 아는데, 어떤 일을 주

# 저녁 9시엔, 간디 닉우-스

## - 제천간디학교 사상 최고의 혁명! 본방 사수하세요 -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7일 사이, 제천 간디학교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입니다. 학교 규칙 중 3가지"를 백지화한 채 4주를 보낸 이 사건은 법무부의 발의로 시작된 '규칙 되돌아보기'의 일환이라고 하는데, 간디 닉우-스에서 집중 취재해 보았습니다.

### 역사상 없던 혁명 일어나, 법무부 '규칙 존재 이유, 학생들 체감 필요'

제천간디학교 사상 최고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정확히 4주간 '규칙 되돌아보기 4주' 안이 실행된 것인데,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는 여태까지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9시 50분, 제천 간디의 아침열기 시간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4년간 학교를 다니며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아침열기 시간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점수를 대결하며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기숙사에서조차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기숙사 공부방에 들어가면 타자 소리부터 들리는 것이 익숙해질 정

도로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논문 발표를 앞둔 3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노트북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문을 쓸 수 있게 되어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의 최대 수혜자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이고 큰 변화가 일어난 건 간디학교 전체 역사를 따져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갑자기 이런 기간을 시행한 것이 뜬금없다는 의견도 종종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 4주'는 꽤 오래전부터 기획되었던 안입니다.

“원래 법무부에서 추진했던 안<sup>2)</sup>은 다른 안이었었는데, 그 안건이 가족회의 때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면서 법무부 내에서 다시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법무부)만 이런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

로 하시나요?

A. 이사장은 조합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괄하는 역할이잖아요. 저도 살림이나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것, 공공기관 업무를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어요.

Q. 다른 직원은 몇 명 정도 있나요?

A. 직원은 한 명도 없고 4명의 임원이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좀 안정이 되면 직원을 더 구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임원끼리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시작한 지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힘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A. 많죠. 협동조합에서 가장 힘든 게 돈 문제예요. 지금은 인건비 문제가 제일 크죠. 일하는 사람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웃음).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수익이 많이 생기게 되면 분배 문제도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Q. 그래도 나름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A. 그렇죠. 장기 예약도 많이 들어오고 점차 안정되고 있어요. 1~2년만 있으면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Q. 그럼 향원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나저나 손 쌤하고 거의 20년 지기 친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나요?

A. 대학 동기로 1988년에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계속 알고 지내고 있어요. 거의 28년(?) 됐죠. 예전에는 같이 자취하기도 했어요.

Q. 손 쌤을 통해서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A. 그렇죠. 그 친구가 산청 간디에 있을 때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전까진 전혀 몰랐죠.

Q. 학교에 와 보셨다고 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나요?

A. 약간 자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당에 가 보니까 스스로 배식도 받고.

Q.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나름대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학교를 선택했을 텐데, 본인이 선택한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틀림이 아닌 '다름'에 대한 이해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나만의 방식으로 살면 된다는 것을 청소년기에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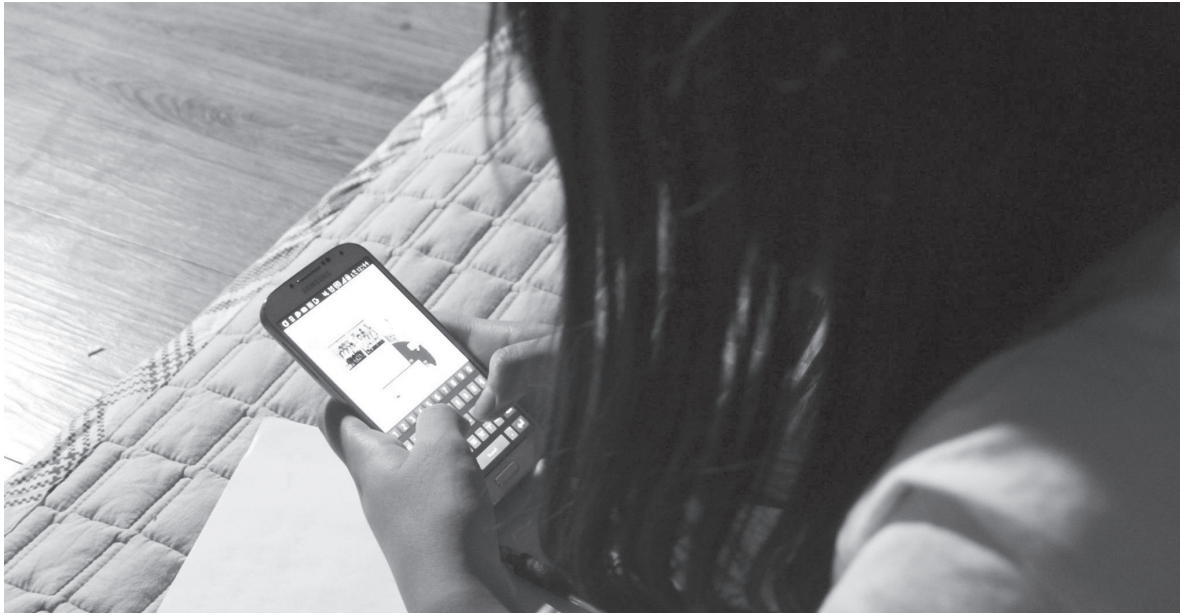
Q. 혹시 제주도 방언으로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나요?

A. 음... 쉬멍~쉬멍 허구자 하는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웃음)<sup>1)</sup>.

인터뷰는 길지 않았지만 2박 3일 동안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배도 든든히 채우고 온 두 기자였습니다. 숙소와 식사 제공, 운전까지 정말 과분한 대접 해주신 강치호 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어디 놀러 갈 일 있으면 '향원' 잊지 마세요! :) 🍷

1) 쉬엄쉬엄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1) 1.매점 및 인스턴트 식품, 배달 식품, 즉석 식품, 수입과일 금지 2.평일 교육 공간 밖으로 외출 및 외박 금지 3.휴대폰, 노트북, 태블릿PC 소지 금지 및 게임 금지.  
2) 같은 규칙을 3번 이상 어긴 사람은 그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해석된다. 따라서 책임수행으로 해당 규칙에 대한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



생들이 현 규칙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야 하는데, 규칙 없이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 정확하게 문제를 짚어 내지 못하고 추측성 발언만 난무하던 상태였죠. 이런 상황에서 규칙 없이 살아 보며 규칙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미 한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과격적이고, 학생들을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 안 들 수가 없었죠. 그래도 교사가 학생에게 규칙의 필요성을 자꾸 강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직접 체감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규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판단하는 건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학생회 담당 교사 송민혜)

박성민 장관은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를 하며 학생들이 직접 변화에 앞장설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바람

을 비쳤습니다. 이예슬 기자입니다.

### 규칙 백지화의 양면… ‘연락하기 편해’ vs ‘게임 중독 실감’

규칙이 없어지면서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를 통해 실제로 학교에 규제가 없는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었는데, 역시 규제가 없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이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없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 학교를 뒤지던 건 옛날 일입니다. 규칙 되돌아보기 4주 동안, 학생들은 누군가를 찾을 때 휴대폰을 꺼내 드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연락드리기에도 용이하다며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휴대폰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전화할 때 편했고…”



(1학년 김모 군)

하지만 휴대폰이 연락의 수단으로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둘러보다 보면 현관, 교실 할 것 없이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화면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휴대폰 게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4학년 안모 양)

다른 규칙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 음식 철학과 맞지 않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왔던 학교 옆 매점이 허용되자, 분리수거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반면 매점 허용으로 인해 너무나 한가해진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규칙 되돌아보기 4주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카페 작업장입니다. 교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 학

생들은 “규칙 되돌아보기 때문에 카페가 망해 간다”며 한탄하다, 결국 신메뉴로 ‘라면’을 내세우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매점이 허용되자 해방감에 매점을 덜 간다는 학생도 많았습니다. 규칙 되돌아보기 평가 간담회에서는 ‘해방감이 들어서 좋고, 막혔을 때보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덜하다’, ‘외출이 가능해지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안 나가게 된다’는 의견도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가 없는 상태에서의 ‘자유’와 ‘해방감’이 학생들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박성민 장관은 “그 또한 기대했던 부분 중 하나”라며 “그 느낌이 일시적이지 않도록 잘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많이 심어 준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 4주는 확실히 그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의 최초 바람처럼 많은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규칙 문제에 접근해서 직접 변화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 을미년 가을축제 보고서

2015년 가을, 유희를 즐기는 전하께서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를 주최하셨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날씨 변동으로 사건이 되어 버렸으니! 역대 가을축제 중 가장 요란했던 현장을 승정원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 한다.

가을축제: 매년 가을 즈음 5학년이 준비하는 축제로, 학년 전체가 준비하며 많은 아이디어와 단합을 요구한다. 때문에 매년 학년의 특성마다 축제가 달라지며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축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백성들은 들어라! 2015년 10월 10일 을미년 가을축제를 주최할 것이다. 축제 준비 팀 '신호위반'(5학년 반 이름)에서 '조선시대'라는 테마를 발표했으니, 이에 맞춰 한복을 입고 오는 자에게는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일시: 을미년 시월 십일 두 시-네 시(부스)  
여섯 시 반-여덟 시 반(공연)  
장소: 제천간디학교 운동장 및 강당

-전국에 배포된 축제 알림 방



것 같습니다. 이에술 기자였습니다.

## '무한의 계단', 학교 최고 유행 게임으로 등극

짧은 한 달이었지만 유행은 그 어느 것보다 발 빠르게 학교를 지배했습니다. 여태껏 발생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트렌드가 학교를 휩쓸었는데, 저희는 이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에술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양한 규제가 풀리면서 학교에는 여태까지 볼 수 없던 신선하고 새로운 모습들이 많아졌습니다. 간디 다투-스의 분석 결과, 가장 빠르고 강력했던 유행으로 '무한의 계단'을 꼽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게임은 방향을 바꿔 가며 계단을 오르는 아주 단순한 게임입니다. 그래픽 또한 고전적인 픽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만큼 순간적으로 고도의 집중력을 이끌어 내며 수많은 학생들을 중독으로 빠뜨리기도 했는데, 2천 계단을 넘게 오른 학생부터 새로운 기술을 연마한 학생까지 다양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 많이 할 때는 생각날 때마다 켜서 했었어요. 진짜 중독. 지금 최고 점수인 2,800점 좀 넘게 찍고 나서서 기가 빠져서 손도 못 대요. 저는 제 한계를 찍었습니다." (무한의 계단 최강자 5학년 서모 양)

이 외에도 떨어지는 피아노 타일을 순서에 맞게 누르면 피아노 곡이 나오는 '피아노 타일', 달리는 사람을 적당한 타이밍에 터치하여 앞의 블록으로 점프하게 하는 '어메이징 시프' 등 수많은 게임이 새롭게 유행을 타기도 했습니다. 서모 양은 본인이 심각한 계

임 중독임을 시인하며 "휴대폰이 풀린다면 또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 게임만 성행한 것은 아닙니다. 남자 기숙사에서는 노트북으로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심지어 공부방에 모여서 함께 대전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틈날 때마다. 한 번 켜면 1~2시간은 훌쩍 가요." (4학년 최모 군)

학교의 변화에 빠르게 발맞춰 전교를 장악한 이 게임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중독의 문제로 인해 평가 간담회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유와 절제, 그 균형을 잘 지켜 나가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술 기자였습니다.

규칙의 필요성에 관한 연극이나 PPT가 끝이었던 여태까지의 규칙 되돌아보기와 전혀 다른 교훈을 준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 주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했던 규칙 백지화에 도전한다는 것이 이번 규칙 되돌아보기의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판단과 변화가 학생들의 몫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 1. 비가 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야심차게 준비한 콘셉트 ‘조선시대’! 축제를 준비하는 5학년들의 고민은 콘셉트부터 무대까지 다양했지만, 가장 큰 고민은 부스 설치였다. 모름지기 축제는 화창한 날씨에 야외에서 했을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만, 최근 2-3년간은 날씨/콘셉트에 맞춰 실내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할지 야외에서 할지, 야외에서 한다면 비가 오진 않을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았다.

5학년은 조선시대에 맞춰 저잣거리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야외 부스를 기획했다. 높은 하늘과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신나는 노래, 부스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을 상상했지만, 기상청에서 발표한 10월 10일 날씨에는 먹구름이 그려져 있었다. 가을축제 하루 전인 10월 9일은 맑다고 예고되었는데, 이날이 원래 계획했던 축제 날짜였기 때문에 아쉬움은 곱절이 되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비가 오지 않길 기도하며 이런저런 미신을 조금 믿어 보았다. 기숙사 방에서 굿을 하듯이 뛰면서 소리도 질러 보고, 맑은 날씨를 불러 온다는 일본의 인형 ‘테루테루보즈’를 현관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비가 오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2. 하늘도 무심하지

기상청에 열 번을 물어 봐도 비가 온다는 대답은 똑같았다. 결국 5학년은 축제 전날 저녁 실내에 부스를 설치해 놓았지만 여전히 미련이 남았다. 금요일의 맑은 날씨가 이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다.

드디어 토요일 아침이 밝고, 5학년들은 부스 설치에 대해 긴급하게 회의를 했다. 첫 번째로 기상청에서 예고

한 시간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두 번째로 비가 온다고 해도 많이 오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하늘은 좀 흐렸지만 야외 부스 설치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바쁘게 부스와 무대를 설치하고 있을 때 점점 하늘이 맑게 개는 게 아닌가! 5학년들은 실내에서 부스를 진행했으면 억울할 뻔했다며 좋아했다. 그렇게 맑은 하늘 아래서 계획했던 대로 부스를 설치하고 무대 리허설을 진행하며, ‘오늘 비가 올 리는 없겠지?’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것이다.

오후 2시, 부스가 시작되었다.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과거시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는 ‘유배지’, 신분상승 또는 유배지에 가는 ‘노름장’,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주막’, 양반들만 출입할 수 있는 ‘양반집’, 왕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왕 부스’, 가장 빨리, 많이 먹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먹쟁’, 사방치기와 투호를 할 수 있는 게임 부스, 돈을 환전해 주는 ‘환전소’, 그림을 그려 주는 ‘신사임당’과 점을 봐 주는 ‘무당집’까지 각양각색의 부스가 운영을 시작했다. 그 외에도 귀/입/눈 등만 찍어 놓은 사진을 보고 누군지 찾아내는 현상수배와 동아리 및 작업장에서 판매하는 부스로 운동장은 금세 북적북적해졌다. 여기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조선시대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러나 기대도 잠시, 하늘에선 굵은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시작한 건 2시 5분경, 그러니까 부스를 시작한 지 5분도 되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곧 그칠 줄 알았던 비는 더욱 거세졌다. 천막을 치지 않은 유배지는 실내로 장소를 옮겼고, 운동장 곳곳엔 물웅덩이가 생겼다. 우산을 쓴 사람들은 이리저리 부스를 돌아다녔지만 일부 사람들은 학교 현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그리고 부스가 끝나 가던 오후 4시,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 왔다. 설치해 놓았

	10/9 - 가을 축제 전날	10/10 - 가을 축제 당일	10/11 - 가을 축제 다음날
아침 7:45~ 9:30	아주 맑음 	흐림 부스 설외/설내 설치회의 	
오전 9:30~ 12:40	내일 비가 안오게 해주세요 	망음 다시 설외에 부스설치 	11:00 계속비음 무대정리 
점심 12:40~ 2:30		부스 준비 비가 조금씩 오음 비바람이 점점 	정리끝난대쯤 비그림 망음 
오후 2:30~ 5:30	다음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설내부스설치 	(학생, 쌤, 학부모님들의 도움으로 부스정리를 끝냈습니다) 회식가자.. 	
저녁 5:30~		공연 	

이영경 삽화기자(2학년)

던 부스가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날아간 것이다. 덩달아 전신 거울도 바람에 굴러 깨지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덕분에 부스 마감 시간이던 4시에 맞춰서 전교생과 쌤들, 학부모님들까지 달라붙어 운동장을 치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 이런 날, 하필 이 시간이라니. 하필 올해 가을축제라니!

### 3. '신나는 축제'는 아니지만 '즐거운 사건'으로

난장판이 된 가을축제 부스가 끝나고 5학년은 절망에 빠졌다. 최고의 가을축제는 아니어도 최악의 가을축제는 아닐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준비한 5학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 주었다. 다행히도 저녁 때 진행된 무대는 무사히 마무리됐고, 모두들 힘들었지만 훈훈한 분위기로 끝나칠 수 있었다. 어쩌면 비바람에 부스가 날아간 역대 최악의 가을축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 함께 운동장을 치우던 것을 떠올리면 왠지 웃음이 난다. '신나는 축제'는 아니어도 '즐거운 사건'쯤으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준비한 축제가 망가져 아쉽긴 하지만 적어도 평범하진 않은, 10년쯤 뒤에도 생각날 법한 특별한 축제였다. 먼 훗날 축제를 즐기다 중얼거릴 지도. "아, 이번 축제는 너무 평범하군!"



### +백성들의 짝막한 소감

무작위로 선정한 전교생과 쌤들 13명에게 이번 가을축제에 대한 소감을 받았다. 그중 일부를 기록해 놓겠다. 부스가 날아가던 상황에 맞추어 '비가 몰아치고 부스가 날아가던 4시경 자신의 상황과 심정을 적어 주세요'라고 질문했다. 이들이 축제 전에 가지고 있던 기대는 평균 3.8점(5점 만점)이었고, 부스 시작부터 몰아친 비 때문인지 부스 참여도가 높진 않았다.

-교사 A씨

아이고~ 아이고~ 오학년은 어떡하나, 일기예보 농락에 몸도 고생 마음도 고생. 아이고~ 아이고~

-교사 B씨

그날, 그 자리에 도박장에서 재미지게 놀고 있었는데 도박에서 사탕을 3개 잃던 그 시각이었던 것 같다. 비가 오에도 재밌게 즐기고 있었지만 상황이 무시무시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와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행사의 막바지여서 함께 잘 수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아쉽긴 했지만, 중간에 끊겨 다 같이 신나게 치우던 것이 인상 깊었다.

-6학년 C씨

재앙이 닥치는 것 같았습니다. 부스가 뒤집어지고 비가 몰아치는 걸 보고 세기말이 다가오는 건가 싶었습니다.  
짐 옮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ㅠ 맛있는 거 사 주세요!!

-5학년 J씨

마음이 너무 아팠다. 이 세상이 멸망하길 기도했다.

-4학년 P씨

공연 준비를 한다고 열심히 비를 맞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는데, 부스를 맞을 뻔했다. 생각이 없어졌다. 짐 정리  
한다고 운동화가 다 젖어서 너무너무 슬펐다.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발을 물에 담근 기분이었다.

-3학년 S씨

한복에 흠이 묻어서 조금 짜증났지만 웃겼다. 약간 정신 줄 놓고 웃었음. 웃겼다.

-3학년 T씨

공연 때문에 강당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부스가 날아다녔다. 그리고 희석 샘이 오셔서 가을축제가 파토 났다  
고 하셨다. 솔직히 좀 재밌었다.

-1학년 H씨

카페인 부스를 지키고 있어서 잘 모르겠다.

이상 올미년 가을축제 보고서를 끝마치겠다. 병신년(2016년)엔 전하께서 많은 검토 후에 날짜를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 전하께서는 이번 축제를 위해 고생하신 5학년과 전교생, 쌤들,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신다고 한  
다. 그럼, 내년에도 파이팅! 🍀

# 2부

각기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졸업생들.  
자기 장기를 살려 대학을 간 졸업생도 있고  
여행을 떠난 졸업생도 있고  
창업을 한 졸업생 혹은 열심히 알바를 하는  
졸업생도 있는데요.

## 졸업특집:

## 졸업생은 어떻게 지낼까요

09학번 박록리, 최소은 양을 만나고  
06학번 고예슬 양을 만나고  
04학번 장시내 양까지 만나고 돌아온 일상다반사.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손채은 기자(5학년) 이한슬 기자(3학년)  
최유경 기자(2학년) 최문형 사진기자(2학년)

# 졸업생은 어떻게 지낼까요

09학번 박록리, 최소은

졸업생 인터뷰가 가장 먼저 결정된 학번은 09학번! 현재 가장 갓 졸업한 학년인 만큼 학교 밖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뒹굴뒹굴 놓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는데요. 그 걱정이 무색하도록 알차게 다녀왔다는 베트남 여행 후기와 열정적인 아르바이트 생활, 지금 만나 보시죠!

Q. 자기소개부터 해 주세요.

록리- 학교 졸업해서 놓고 있는 박록리아.(웃음)

소은- 난 최소은이라고 하고, 09학번 졸업생이야. 졸업하고 방황하고 있어.

Q. 두 분이서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왜 다녀오셨는지 궁금해요.

록리- 졸업하면 한 번쯤 여행을 가 봐야겠다고 생각했었어. 그렇게 큰 이유는 없었고, 웬지 다녀오면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될 줄 알았는데 갔더니 똑같더라고. 그냥 신나게 놀고 왔어.

소은- 뭔가 졸업할 때부터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김예림(11학번)이 라오스에 다녀왔더니 되게 좋다고 해서 막연하게 라오스를 갈까, 어디를 갈까 고민하고 있었어. 근데 록리가 같이 여행을 가자고 권유를 해

줘서 같이 가게 됐어.

Q. 여행 다녀오신 곳은 어디어디예요?

소은- 베트남, 라오스.(웃음) 지역은 호치민, 무이네, 달랏, 나짱, 호이안, 푸에 가서 라오스 가는 12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어. 비엔티엔 도착해서 구경하다가, 방비엔으로 넘어와서 블루라군 구경하고, 그 다음엔 투앙프라방 가서 팡시 폭포도 갔고. 비행기 타고 하노이 와서 아웃을 했지.

Q. 여행하면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소은- 그래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기겠지 하는 기대를 하고 갔지만, 그냥 재밌게 놀고 맛있게 먹고 놀다 온 것 같아.

Q. 여행이 끝났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록리- 나는 지금 알바를 더 해서 대학도 가 보고, 여행을 더 쪽 많이 다닐 생각이야.

소은- 원래 워킹홀리데이를 생각했었는데, 대학 준비도 해 보고 싶어서 아마 내년에는 대학 준비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아. 또 여행을 가게 된다면 워킹홀리데이가 될 것 같고.



Q.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요?

소은- 나는 단기 알바를 했는데, 백화점 사무실 쪽에서 일했어. 그래서 사무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 사무실도 치열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 사회생활은 이런 거구나.(웃음)

록리- 나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빵집에서 일하고 있어.

Q. 두 분 다 각자 여행을 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이 될까요?

록리- 원래는 올해 안에 혼자 여행을 가 보고 싶었는데, 다 지나가고 준비도 아직 된 게 없어서 다음 연도에 여행 대학을 가서 3개월 동안 배우고 떠나려고.

소은- 원래 베트남 다녀와서 직후엔 태국 여행을 가 보려고 했었어. 원래 태국을 가 보고 싶어서 태국에 가 보려고 했는데 방콕 폭발 테러 같은 것 때문에 주춤하고 알바를 안 해서 모은 돈도 없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여행은 아니지만 올해

말에 봉사하러 네팔을 갈 것 같아.

Q. 졸업을 하고 나서 학교에서 가장 크게 배우거나 얻었던 점이 궁금해요.

소은- 어렵다.(웃음) 검정고시 공부를 하면 도덕 부분에는 거의 철학이 많거든. 거기에 학교에서 했던 인문학 수업 내용이 정말 그대로 나와. 정말 똑같이 나와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말고는 배운 게 도움이 됐다는 것보단 사회에 나오면 정말 내가 왜 이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까 하고 학교에서 생각했던 게 그리워질 때가 와.

록리- 진짜 졸업하기 직전에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겠다는 것 그려 놓는데, 막상 졸업하고 나니까 내 한 달 앞도 모르겠어.

소은- 근데 학교에서 학생회나 동아리 회의했던 게 그리워지는 것 같아. 학교에서야 내 의견 발표하는 게 지켜줬는데, 막상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서 학교에 있을 때 많이 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록리- 학교 친구들이 오래 가잖아, 그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 애증의 관계지.(웃음)

역시 여행하면 재미난 에피소드가 빠질 수 없죠! 인터뷰가 끝나고 잡담처럼 편하게 나눈 여행 중 에피소드들을 풀어 놓아 보았습니다.

#### 에피소드 1.

라오스 방비엥에 갔을 때 호텔에서 묵었는데, 나(소은)랑 록리랑 방에 있다가 같이 잠깐 그 밑에 식당 같은 곳에 밥을 먹으러 내려갔었어. 방 열쇠를 가지고 내려갔었는데 그 열쇠를 잠깐 어디다 두고 밥을 먹고 다시 방에 올라왔어. 근데 열쇠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작은 걸 찾느라 진짜 계속 뒤졌단 말이야. 어찌어찌해서 호텔 측에서 방을 열어 주긴 했어. 근데 그 열쇠를 잃어버리면 열쇠가 아예 없어서 나랑 록리랑 한 명은 방에 있고, 한 명은 불 일 보러 가고 그러면서 교대로 방에 있었어. 열쇠를 잃어버려서 벌금도 물고.

그 다음날 밖에 나가서 관광하고 왔는데, 주인 아줌마가 열쇠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벌금도 돌려받고 찾아 주신 분한테 선물도 드렸어. 그 이후로 나는 열쇠를 안 가지고 다녔지.

#### 에피소드 2.

비엔티엔에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때, 우리가 막 신나서 신라면을 먹고 있었던 말이야.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우리에게 한국인이나고 한국말로 물어 보는 거야. 한국인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진짜 좋아했던 말이야. 게다가 그 아저씨가 막 완전 잘해 주는 거야. 먹을 것도 챙겨주겠다고 하고 몇 호 방이냐고 물어 보고. 그래서 어찌어찌하다가 행선지가 같아서 다음날 같이 가기로 했어. 그 아저씨는 사업 때문에 차를 타고 와서 태워 줄 수 있대. 그래서 신나서 다음날 같이 출발했지. 근데 가는 도중에 몇 번씩 어디를 들르는 거야. 계속 쉬고 이러는 바람에 진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 결국 잘 도착하긴 했는데, 그분은 아직도 연락을 해 오서.

## 06학번 고예술

“나는 좋은 예가 아니야. 안 좋은 예라고.”라고 말씀하시는 예술 쌤.

일상다반사 내 최고 학년인 5학년 손채은 기자가 알고 있는 예술 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손채은 기자가 1학년이 있을 적, 말 한 번 걸어 보지 못했던 6학년 선배가 졸업하고 나서 쌤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간디를 졸업한 분이 다시 간디 사감으로 돌아온 이야기와 더불어 예술 쌤의 하루를 한 번 들여다볼까요?

새벽 3시 월요일.

예술 쌤은 바쁘시다. 아직도 잠에 들지 않고 뭘 하시나. 바로 월요일 오전에 있을 주여<sup>1)</sup> 때문에 그렇다. 오늘이 쌤이 주여 발표자이기 때문. 4년 만에 돌아온 간디인의 7번째 주여라고 할 수도 있겠다.

사감으로 오시기 전, 예술 쌤은 6학년이 되면 해야 하는 인턴십 때 갔었던 인권운동단체에서 활동했다고 하신다. 3년간 반상근 간사와 활동가로 활동하셨

던 예술 쌤은 미리강의 스카우트로 1년간 사감직에 앞게 되셨다.

아침 7시.

겨우 4시간만 자고 일어나신 예술 쌤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트북을 켜신다. 전날 밤. 여자기숙사 내에서 진행했던 간담회 정리를 위해 1시간씩이나 일찍 일어나신 예술 쌤. 타닥타닥. 점심에 있을 남자 기숙사 전체 모임 때 간담회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정리를 하신다.

아침 9시 30분.

그렇게 예술 쌤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된다. 주여로 예술 쌤은 과감히 자신의 과거를 보여 주셨다. 중 3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정해서 쪽 달려오신 얘기. 사회 운동에 빠지셔서 학교를 가출(?)했던 얘기. 착신했던 중등 생활과는 다르게 미이수로 가득 찬 자신의 고등부 성적표까지. 영상으로 이어나갔던 주여는 지금도 그렇지만 짧은 머리이신 예술 쌤으로 가득했다.

마지막엔 후배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까지 해 감동적인 주어를 만드셨다.

주어가 끝나자마자 기숙사로 올라오신 예술 쌤은 테라스에 놓인 버려질 쓰레기더미를 쓰레기장으로 옮기기 위해 치우신다. 쓰레기를 치우신 뒤, 학교로 돌아오신 예술 쌤은 남학생 간담회에 참여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셨다.

저녁 9시.

점심시간에 남학생 간담회를 참여하신 예술 쌤은 저녁을 드시고 기숙사로 올라온다. 곧 여자 기숙사 청소 시간. 청소 시간 땡 치자마자 방마다 돌아다니시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애들을 확인하신다.

저녁 10시.

여자 기숙사 스태프 회의가 열렸다. 도난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직접 예술 쌤이 상황을 공유해 주시며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모든 사건들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금방 회의가 끝났다. 그에 예술

쌤께 힘드시지 않으냐고 여쭙 보자 이 정돈 껌이더라고 말씀하신다. 예술 쌤이 중 2일 적, 끝장 회의를 했다고 한다. 회의를 결말지을 때까지 한다 해서 끝장 회의라고 한다. 밤새 회의를 하기도, 왜 뛰는지 모르겠지만 도기까지 달리기도, 단식을 하기도 하셨단다. 굉장하다.

예술 쌤은 이어서 3학년들의 고등부 진급을 위해 진급 면담을 하셔야 했고, 다가오는 졸업식의 시놉시스도 짜셔야 했다. 또, 여자 기숙사에서 열렸던 도난 회의를 정리하신 후에, 다음 날 아침에 있을 교사회의에 공유해야 한다. 정말 바빠 보였지만 오늘날 유독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신다.

미리강계 스카우트되어 여자 기숙사 사감이 되신 예술 쌤. 여자 기숙사 사감을 구하려 했지만 대부분 반학기만 가능하다는데 미리강은 고민에 빠지셨다. 아무래도 사감이란 자리는 관계 맺는 게 중요한 자리인데, 반 학기란 시간은 너무 애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졸업생인 예술 쌤에게 부탁을 드렸고, 예술 쌤은



‘학교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당연히 내가 달려와야지’ 하고 오게 됐다고 한다.

이러쿵저러쿵 (다 풀어 내지 못한 이야기.)

-학교에서 꾸셨던 꿈은?

꿈? ...정의 구현? 세계 평화? (정말요?) 그냥 간단인 스텝이 앞으로도 살 수 있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물론 별로인 부분도 많지만, 핵심적인 가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

-학교에서 꾸셨던 꿈과 현재와의 싱크로율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진 100퍼센트라 생각했어. 근데 여기 와서 인내심을 시험받는 순간이 꽤 있었던 것 같아. 내 자신에게서나 동료 교사에게서나.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고난에도 이 정도의 살의가 일어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 같아(웃음). 그래서 지금은 반 정도로 준 듯해.

-이제 곧 학교를 떠나시잖아요. 앞으로 계획은?

원래는 인권단체로 복귀하려고 했었는데, 내 안에 쌓여 있는 게 부족하다 보니 이리저리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 그래서 내 내면을 조금 더 쌓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 여행을 다닐 계획이고 돈을 필요로 하니깐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고 있어. 아마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을까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렵다는... 아마 캐나다로 갈 듯해.

-재학생에게 해 줄 말이 있다면? 노는 게 전부다...?

노는 게 전부지(웃음). 하고 싶은 거 뻑시게 하고 놀 땐 놀고, 요새 내가 학교로 돌아와서 놀란 게 애들이 놀지를 않아. 사고도 안 쳐. 왜 그러고 사는 거야? 우정이나 잠깐 사고치고 그랬지. 미안, 우정아 농담이야. 너무 어려운 거 물어 본다. 음... 너무 조금해하지 말라는 거. 이게 나 때에도 제일 필요했던 말이고,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 04학번 장시내

04학번 선배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슬로푸드 청년활동을 하고 계신 04학번 장시내 선배님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Q. 자기소개 한 마디 해 주세요.

A. 저는 04학번 장시내고요, 간디학교 졸업한 지 6년이 지났네요. 지금은 슬로푸드 청년활동을 하고 있고, 계속 농업이나 음식 쪽 일을 해 왔어요. 서울에서 지내고 있고요.

Q.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이름이 '두냐시내'라고 표시되어 있던데, 별명인가요?

A. 시내가 제 본명이고, 두냐는 제 친구가 지어 준 별명이에요. 고1 때 교육과정 중 하나인 필리핀 이동학습을 가잖아요, 그때 딸란디 부족 마을에서 만난 친구가 저한테 지어 준 이름이에요. 저도 그 친구한테

나무라는 이름을 지어 줬고, 그 친구는 저한테 두나라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그때부터 별명으로 쓰게 되었어요.

Q. 졸업하시고 나서 바로 슬로푸드 청년활동을 하셨나요?

A. 아니요. 졸업 직후에는 커피에 관심이 생겨서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도 슬로푸드 관계자 분들 이랑 연락도 하고, 행사 있을 때 도와 드리고 하다가, 이것보다는 슬로푸드 일이 나한테 더 잘 맞겠다 싶어서 옮긴 거죠.

Q.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A. 제가 고3 때 인턴으로 갔던 슬로푸드 한국협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활동가로 진향해서 돈 안 받고 활동도 했어요. 지금은 청년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그쪽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좀 재미없고 약간 지루한 면이 있어서 좀 젊은 친구들이랑 신나는 일을 하고 싶었



어요. 그래서 취미로 슬로푸드 청년네트워크라는 것을 시작해서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은 문산도 반대 행진, 아니면 b급 농산물로 요리 파티도 하고, 젊은 농부들 이야기를 듣는 토크쇼도 하고 있어요.

Q. 간디학교 다닐 때부터 슬로푸드 쪽에 관심이 있었나요?

A. 네. 그냥 계속 음식이나 요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Q. 재학 때 생각한 미래 모습과 현재 모습의 싱크로율은 어느 정도 맞나요?

A. 거의 안 맞는데요.(웃음) 재학생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무슨 직업을 생각을 못했었던 것 같아요. 도시에 살까 시골에 살까 누구랑 살고 있을까 이런 모습을 상상했지, 어떤 직업으로 일을 하고 있을지는 상상을 못했어요.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웃음) 싱크로율은 한 30% 정도인 것 같아요.

Q. 간디학교에서 배운 점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피해가 될 때도 있어요. 도움이라 하면 원래 푸드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농사도 짓고, 친환경적인 삶을 배우면서 슬로푸드라는 것에 대해 알고, 또 음식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음식에서 조금 더 확실한 길을 정할 수 있게 해 준 길잡이 역할을 해 준 것 같고, 학교에서의 생활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피해가 될 때는 학교에서 살아왔던 환경이랑 지금은 너무 다른데, 공동체 생활습관이 자꾸 몸속에 있으니까 사회생활할 때 자꾸 부당한 게 눈에 보인다는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 혼자 불만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많죠.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으니까.

Q. 간디학교엔 부모님 권유로 들어오셨나요?

A. 부모님이 제 의견을 물어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계절학교<sup>2)</sup>를 갔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지원서를 내 볼까 해서 냈는데, 된 거예요. 별로 진지한 생각은 없었어요.(웃음)

Q. 많은 후원자분들이 졸업 후 대학진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본인의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A. 저는 일단 한국에 있는 대학 중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과가 없어요. 억지로 가려면 갈 수는 있는데,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심지어 등록금도 비싸고, 그런 상태에서 가고 싶지 않아서 일단 선택은 안 했어요. 오히려 외국학교에 다닐 기회가 많기도 하고, 원하는 학교들도 많고,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어요.

Q. 주변 동기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A. 너무 다양한데요(웃음). 알바하면서 음악하면서 먹고사는 친구도 있고, 유치원 선생님을 하는 친구도 있고,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어요. 되게 다양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슬로푸드가 비영리 단체거든요. 뭐랄까 일을 하면서도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돈을 버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기도 하고,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기도 해서 사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Q. 마지막으로, 간디학교 재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일단 후회 안 되게 신나게 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만 자지 말고(웃음). 보호를 받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때가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도 많이 벌이고, 쌤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해 보고, 억지도 부리면서 재밌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신나게. ♡

## 3부



수상한 그들의 이야기  
 선생님 특집 화제의 인물! 주여 요정 아름 샘  
 ♥중학생 우제의 일기♥

이한결 박우제 김담

2) 방학 때 1주일 동안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초등학생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5년 간디인 여름 호 참고 바람.



# 홈스테이 그들의 이야기

혹독한 겨울이 왔습니다. 해발 500M에 달하는 기숙사는 더 춥습니다. 그리고 이 추운 기숙사를 탈출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온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기숙사를 탈출해 홈스테이의 행운을 안은 그들, 바로 서하린, 장우정(11학번) 양과 신동현, 안상윤(12학번) 군의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Q. 홈스테이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동헌- 나는 일단 도난회의가 너무 싫증났고, 이 학교 들어와서 중3 때부터 공동체를 벗어나서 혼자 살고 싶었어. 근데 그게 홈스테이에 가까웠던 거 같아.  
상윤- 우리가 3학년 때 회의를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회의가 싫었고 동헌이가 계속 같이하자고 해서 했어. 근데 좋은 선택인거 같아.

우정- 그냥 한 마디로 말하면 기숙사가 너무 싫었어. 회의도, 매일 미친 듯이 하는 청소도 싫었고, 사람들이 많아서 시끄러운 것도 싫었고, 중등부 애들이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도 싫고, 시간이 되면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싫었고, 학교에서도 멀리 있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던 거 같아.

하린- 나도 똑같은 이유로 모든 게 다 싫었어. 이번 1학기 말에 우리 4명(서명아, 김예림, 서하린, 장우정)이 남아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우리 둘이 뽑혀서 가게 된 거야.

Q. 홈스테이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우정- 안 좋은 점 없는데...

동헌- 아! 난 있어. 좀 눈치 보여. 기숙사는 늦게 자도 어차피 우리끼리 사니까 괜찮은데, 여기에서는 부모님들이랑 사는 거니까 늦게 자면 눈치 보이고. 그리고 기숙사에선 노래도 부르는데, 여기선 노래도 못 불러. 그게 슬퍼.

우정- 어젠 안 계셨잖아.

동헌- 있었잖아, 누나들.

하린- 우리 있으면 못 불러?

동헌- 부끄러워서. 그리고 난 원래 샤워하면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는 게 일상인데, 여기선 눈치 보여서 못하는 게 아쉬워.

하린- 좋은 점은 학교랑 가깝고, 집도 넓고 좋아.

우정- 그리고 빨래도 그때그때 할 수 있고, 그냥 정해진 일정이 없어. 청소도 없고 회의도 없어.

하린- 또 와이파이도 되고.



동헌- 나쁜 점 있어. 와이파이도 끊겨.

하린- 아! 나쁜 점 있어. 회의할 때 기숙사에 올라가야 하는 거.

동헌- 와, 맞아~

상윤- 진짜 싫어!

하린- 그래도 기숙사 스태프회의는 안 해도 돼서 좋아.

우정- 개인 가정집이라서 불편한 점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어. 냉장고도 부탁드리면 사용 할 수 있고, TV도 가끔 같이 볼 수 있고... 그냥 사소한 좋은 점이 많아.

동헌- 안 좋은 점 있어. 옷 빌리기가 힘들어.

모두- 와! 진짜! 인정!

Q. 기숙사와 다른 점은?

동헌- 여기선 자유로워. 기상송도 안 나오고 퇴소도 맘대로야. 되게 편히 자는 것 같아.

우정- 밥 먹기 전에만 내려가면 돼.

하린- 맞아, 여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목학 때 떠들어도 되고 취침에 불 안 꺼도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자유로워.

우정- 사실 규칙상 입소, 퇴소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 빼고 아무것도 없어.

Q. 홈스테이 팀(나중에 갈 사람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정- 짐을 나누어 가져오면 편해. 예를 들어, 애는 화장품, 나는 세면도구.

상윤-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린- 비효율적이지. 명칭해.

상윤- 아! 팀이 있어. 법무부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만날 기숙사 올라가야 돼. 여기 살 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마. 진짜 힘들거든.

하린- 올라가게 되면 정말 힘들어. 그럴 땐 그냥 쉰



다고 해.

**에피소드!**

우정- 너무 많은데...

하린- 어메이징 템<sup>2)</sup>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가정학습 가기 최고 기록 세우는 걸로 점수 낮은 사람 둘이서 치킨 사 주기로 했는데, 지금 나랑 동헌이가 꼴찌야.

동헌- 1점 차야.

상윤- 내가 일등이야! 132점이라고 꼭 써 줘.

우정- 우리가 만날 팩 만들어서 홈스테이 아줌마랑 남자 애들 해 줄 때도 있어.

하린- 우리가 남자 애들 매일 시켜 먹어.

우정- 홈스테이까지 가방 다 들게 하거나

하린- 저번에 홈스테이까지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업어 주기 했는데...

상윤- 내가 다 이겼어.

하린- 그래서 애 때문에 내가 팔 근육이 아팠어. 근

데 나도 업힌 적 있어.

상윤- 내가 더 많이 업혔어.

하린- 그리고 상윤이가 진짜 겁이 많아.

우정- 진짜 쫄보야.

상윤- 아닙니다!

하린- 애 진짜 겁 많아.

우정- 상윤이 진짜 쫄보여서 혼자 기숙사 못 간다~

상윤- 가!

우정-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잖아. 예를 들어, 내려올 때 깜깜하잖아. 그때 우리가 몰래 막 뛰는 거야. 그럼,

상윤이가 거의 울다시피 쫓아온다~

상윤- 이러면 전교생이 다 보잖아!

우정- 이런 건 알려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같이 가지~

하린- 그리고 애가 혼자 기숙사에서 내려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가로등 꺼질 때마다 멈추고 했는데...

상윤- 잠깐만! 아니! 아니야!



우정- 기숙사에서 홈스테이까지 40분이 걸렸다~

모두- (웃음) ㅎㅎㅎ

상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하린- 그리고 학기 초에 고스톱으로 아침 설거지 내기도 많이 했어.

우정- 동헌이가 아침마다 설거지했어. 진짜 못 처~

동헌- 아니야!

동헌- 이 누나들은 누텔라<sup>3)</sup> 겁나 많이 먹어~

우정, 하린- 지는!

상윤- 난 안 먹어. 나 착하게 살았어.

우정- 그리고 상윤이 몸무게 58킬로그램이다~

상윤- 내 몸을 봤어? 나 안 똥똥해!! 그리고 이 누나들이 더 무거워~

우정- 우리가 원래 엄청 먹는데, 하린이가 3주 동안 다이어트한다고 했거든...

상윤- 망한 거.

하린- 우씨!

우정- 그런데 그게 6시 이후 안 먹는 건데 우리가 먹으려고 제빵작업장에서 식빵을 샀어. 그랬는데 하린이가 한 조각씩 먹으라고 하면서 엄청 아꼈어. 그래서 빵이 썩어 버렸어.

동헌- 곰팡이 피고~

모두- (웃음) ㅎㅎㅎ

**추운 기숙사를 벗어난 홈스테이의 따뜻함은 자유로움과 4명에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추억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준 동헌, 상윤이 형과 우정, 하린 누나 고마워요! 인터뷰를 들어 보니 홈스테이에 저도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는 것 같네요. 4학년 때 행운의 여신이 저에게 손짓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자유를 만끽하며 홈스테이 생활하시길! 🍀**

2) 어메이징 템은 게임인데, 네모난 캐릭터가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이다.

3) 초코 잼으로 일명 악마의 잼이라고도 불린다.



# 주여를 하지 않으면 주여 요정이 찾아온단다

학생들에게 뒤지지 않는 핫한 존재감! 이번 화제의 인물은 선생님 특집입니다.

밀바닥 개그의 신홍 강자! 철수 쌤, 전직 선도부란 엄청난 과거를 가진 은지 쌤, 육아의 늪에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현 쌤을 제치고 화제의 인물에 선정된 선생님은 바로바로 아름 쌤!

학생들의 주를 여는 시간 통칭 주여<sup>1)</sup>(이하 편의상 주여로 함) 참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여 요정 아름 쌤을 만나러 가 보시죠.

Q. 화제의 인물에 선정된 소감이 어떤가요?  
후보가 쟁쟁해서 제가 될 줄 몰랐어요. 계절학교 때 처음으로 화제의 인물 기사를 보면서 언젠가 꼭 화제의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드디어 화제의 인물이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이번 화보를 요정 콘셉트로 찍었는데, 추웠지만 오랜만에 학교에서 하늘하늘한 옷을 입어서 좋았어요.

촬영을 마치고 사진을 보니 제가 간디학교에 와서 살이 많이 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억울하고 무서운 걸 참 좋아하는데, 이번 화보에는 학생들이 주여를 하지 않아 요정에서 귀신이 돼 버린 콘셉트로도 사진을 찍어서 참 재미있었네요.

Q. 학생들이 주여를 하지 않아서 많이 억울하신가요?  
박요.

많이 억울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간 주여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이니까 잘 몰라서

주여 차례인 친구들을 쫓아다니면서 주여 하라고 재촉하며 다녔죠.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너무 싫고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잔소리를 안 하다가 보니 학생들이 주여를 하지 않아서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Q. 주여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면?

참 주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학생 때는 남들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게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또 윤하 쌤이 말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로 가족들과 함께 주를 열 수 있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나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Q. 지금까지 본 주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여는?

음... 너무 많지만 하나를 꼽자면 작년에 재형이(2학년)가 한 주여가 인상 깊었어요. 동화책을 읽어 줬었는데 다 읽어 준 다음 자신이 이 동화책을 읽고 얻은 교훈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가족들도 이 책을 읽고 이러한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주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Q. 본인을 제외하고 가장 핫한 인물을 뽑는다면?  
은지 쌤이요. 학생, 교사 통틀어서 은지 쌤인 것 같네요.

Q. 은지 쌤과 함께 덕산 레빗이란 그룹을 만들어 행사 때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시던데, 어떤 계기로 덕산 레빗이 탄생했나요?

올해 1학기 때 대동제를 했잖아요, 대동제 몇 주 전부터 전야제 공연 신청자를 받았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쌤들끼리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아무

런 계획 없이 무작정 공연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전야제가 1주일밖에 남지 않게 되니까 너무 초조하더라고요. 그때 은지 쌤이 저에게 같이 공연을 하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덕산 레빗이 탄생했지요. 전야제 때는 그냥 일회용 그룹이었는데,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서 대동제가 끝난 후에도 대안교육교사 한마당, 가을축제, 삼간디음악제 등 많은 행사에서 공연을 했어요. 예전부터 노래하고 싶다는 욕구가 많았는데, 간디학교에서 마음 맞는 쌤을 만나 같이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네요.

Q. 작년에 간디학교에 들어오시고 올해 처음으로 1학년에 담임을 맡았는데, 어떠신가요?

재밌기도 했지만 항상 어려웠어요. 1학년 담임이란 특징이 있는 거 같아요. 1학년들은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모든 걸 친구들이랑 새로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점은 내가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고

1) 통칭 주여. 월요일 아침 간디 가족 모두 모여 각자 준비한 이야기로 주를 여는 시간이다.



민이 들었던 것 같아요.

Q. 이번 학기에 여행 만들기라는 수업을 개설하셨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워낙 여행을 좋아해서 만든 수업이에요. 학생 때는 여행을 가려면 부모님 돈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계획하고 준비해서 여행을 가보자 하는 취지로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겨울방학 때 중국 칭따오로 여행을 갈 계획인데, 계속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돈이 모자라서 여행 가기 전까지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걱정이예요.

Q. 학창시절에 아이돌 그룹 빅뱅의 열혈 팬이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2006년 제가 중3 때 친구가 추천한 TV 프로그램으로 빅뱅을 처음 접했고,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어요. 빅뱅 팬클럽인 vip 1기에 가입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오빠들을 보러 갔지요. 팬클럽인 vip는 2기까지 있다가 탈퇴했어요. 팬클럽에 있어 봤자 아무런 혜택 없이 소속사에서 제재를 당하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팬클럽을 탈퇴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승리 팬 페이지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팬 활동을 했어요. 지금은 간디학교에 있어서 팬 활동은 열심히 못하지만, 틈틈히 앨범도 사고 TV에 나오면 꼭 챙겨 봐요. 빅뱅만의 매력은 팬들을 사람답게 대해 준다는 것? 정말 팬들에게 잘해 주거든요. 팬들에게 잘해 주는 게 빅뱅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



Q. 덕산에 온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짝은 언제 찾으실 계획인가요?

짝... 나름 열심히 찾고 있어요. 나의 동반자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고민하지만 덕산에서 연애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사 생활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짝을 찾으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할 것 같네요. 올해는 연애를 하겠다는 마음을 비우고 살았는데, 내년에는 꼭 연애를 해야겠어요.

Q. 한 해가 끝나 가는데, 아름 쌤에게 2015년은 어떤 해였나요?

뭔가 거창한 일은 없었지만, 평생 기억될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담임을 맡아 학급을 이끌어 간다는 게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번외- playlist

가장 좋아하는 노래- 가을 방학의 가끔 미치도록 네가 안고 싶어질 때가 있어

가장 좋아하는 가수- 빅뱅

일어날 때 듣는 노래- 빅뱅의 we like 2 party

자기 전에 듣는 노래- 빅뱅의 i don't understand









2015년 10월 22일 날씨베리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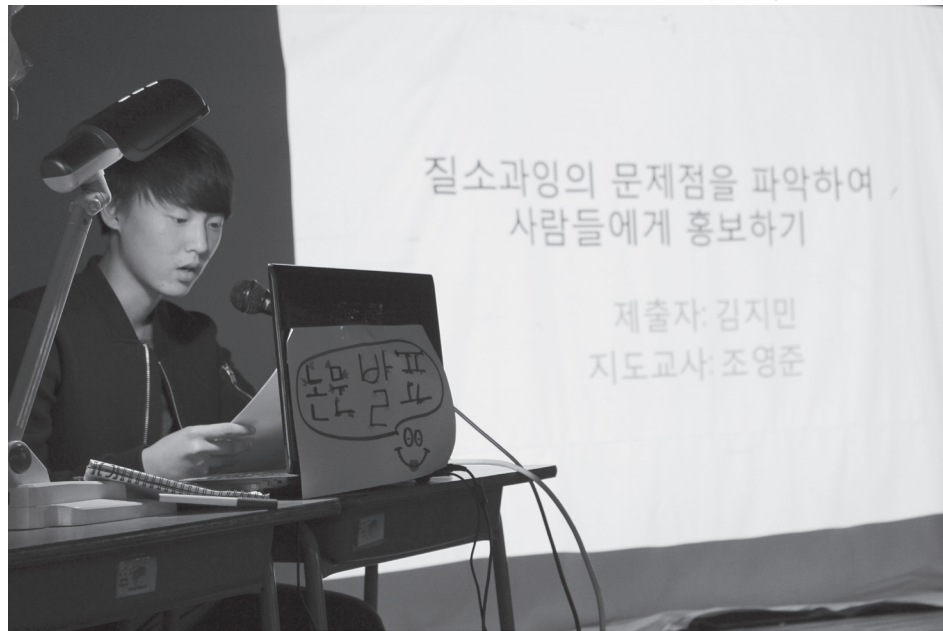
오늘은 부패와 하근이 같은  
아침이 아저씨가 오셔서 노래  
할 줄만 주셨다. 어떻게 할  
줄이 없다. 나쁜 노래 같 부르고  
피고사.

2015년 10월 24일 날씨 맑음.☀



오늘 간디어 교풍 ~~부~~  
상기ანი 축구대회를 했다.  
관심 많은 사람들이 축구경기  
구경했다. 어니 오빠를 모두  
응기이 해서 칭찬이 많았다.

2015년 10월 27~28일 날씨우동충합



그리고 상충적인 어머니/아버지들이  
 노무바다표 느낌이다. 여건이  
 모순인지 모르겠지만  
 재미있다. 어머니/아버지  
 바바가 수고하시어

2015년 10월 29일 날씨행동음.



오늘은 행사부가 준비한  
 새원호 문화에 삼애감파  
 모여 안자서 새원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들  
 나니 새원호 큰 걸대 있지  
 않으며 사라져야 대개서는  
 생각이 들었다.

2015년 11월 21일 날씨 멋쪄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김장 날!  
 모두 다같이 아프로 맛있게  
 먹을 김치를 담갔다!  
 소비무렵 때 \*너무마니  
 머기서 배가 부러웠다  
 온몸 다근 마셨는 김치.  
 내가 다 먹어야지 😊

기자 후기  
 WWWW  
 😊



김재하 삽화기자(1학년)

이번 겨울 호는 뭐라도 한 게 있었네요. ㅋㅋㅋ 주제를 잡고 그리면 그나마 편했을 텐데, 아무거나 그리라고 해서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딱 규칙 없는 4주가 생각나서 획획 그렸어요. 너무 획획 그려서 조금 후회는 되는데,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게 나와서 다행이네요. 그럼, 다음 호에서 뵈요 ㅋㅋㅋ



박우제 기자(1학년)

죄송하여... 기사가 뭔지 모르겠다는 핑계로 계속 밀어서 마지막 1주 만에 너무 대충 쓴 거 같아요 T.T 다음 호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뭐 물어 보면 대답해 주던 민석이 형. 곁이 형. 유경 누나 고마워!!!!



김담 사진 기자(1학년)

겨울 호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보를 처음으로 찍었는데, 생각하고 있던 두려움과 달리 꽤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쑤소에서 문화의 밤이 많이 나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조금 고생했습니다. 3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삽화 기자(2학년)

이번 호는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하하!  
 이 기분으로 다음 호도 예쁘고 멋지게 그리겠습니다.



이한결 기자(2학년)

이번에도 이한결 기자는 헐레벌떡 기사를 써 보냅니다. 이렇게 2015년 마지막 기사를 썼네요. 하하!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하셨고, 내년에 뵈어요.



최문형 사진기자(2학년)

이번 호에도 저번 호처럼 마감을 지키고 싶었지만... 마감될 때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번 호는 아마 인터뷰 사진만 찍게 될 거 같은 예감이...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다음 호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1부 채은 언니, 한솔 언니, 유경이ㅋㅋ 수고했고, 고맙고! 화보 찍은 담이! 언제나 열심히 하는 성현 언니 고마워~! 그리고 편집장님께 감사하고, 마감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유경 기자(2학년)

이번 겨울 호는 게으른 내 자신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게으름 때문에 기사 마감일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편집장 민석 오빠에게 미안하고, 일상다반사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부족한 기사, 즐겁게 읽어 주세요!



이한솔 기자(3학년)

이번 기사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능력 부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연속으로 기사를 같이 쓴 채은 언니,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유경이도 수고했어! 올해 마지막 호인데 마감을 똥같이 못 지켰네요. 정말정말 죄송합니다. 김민석 편집장님, 너무 죄송하고 수고하셨습니다.ㅋㅋㅋ (인턴 가는 예림 언니, 채은 언니, 가원 언니 다들 잘 갔다 오시고 내년에 뵙요:)



박성현 사진기자(3학년)

이번 호는 너무 게을렀던 것 같아요. 부탁받은 사진들도 안 찍고 며칠을 미루다 마감이 다 돼가서야 찍기 시작하고. 죄송합니다! 옆에서 이영경 기자가 자신은 너무 무능한 것 같다며 자책하네요. 다음 호에서 뵙요. ㅋㅋㅋ



이예슬 기자(4학년)

가장 먼저 강치호 후원인 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언젠가 갯을 날이 오면 좋겠네요. 이번 호는 마감하고도 두 주나 지난 후에야 기사를 냈습니다. 매일 독촉하느라 고생한 편집장님과 다른 기자들에게 미안합니다. 내년이면 제일 나이가 많은 기자가 되네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1부를 맡은 예림 언니, 정말 고생했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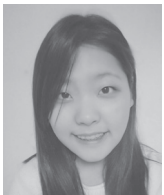
김예림 기자(5학년)

마지막 기사입니다. 5년간 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후원인 인터뷰를 제주도로 가면서 멋진 마무리를 했습니다. 2박3일간 챙겨 주신 후원인 강치호 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같이 기사 쓴 예술이랑 마감 밀려서 고생한 편집장 수고했어용! 다들 앞으로도 멋진 간디인 만들어요♥



손채은 기자(5학년)

대망의 마지막 기사가 이렇게 막을 내리네요. 많이 그리울 것 같으면서도 너무 기쁩니다. 비록 마지막 호임에도 마감을 늦고 하기 싫어 꾸역꾸역 했지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간디인>이 널리 퍼지면서 번창하길 빌며~ 세이 굿바이! 난 이제 인턴을 하러 총총.



이가원 삽화기자(5학년)

드디어 제가 삽화기자 일을 끝내게 되었네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사다난한 5년이었습니다. 삽화 그리는 것 때문에 힘든 적도 있었고 귀찮기도 했었지만, 이제 저에게 <간디인>은 다시 만들 수 없는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제 그림활동의 모든 성장기가 담겨 있으니깐요. 다시 <간디인> 기자후기를 쓸 날이 오지는 않겠지만, 6학년 때 '간디인 갤러리'에 그림 그리는 일 정도는 기대해 봅니다.(그렇다고 진짜 그리게 되면 곤란함::) 저를 일상다반사의 첫 삽화기자로 만들어 준 간디인 스케줄러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끝냅니다. 일상다반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바이짜이찌엔)



김민석 편집장(4학년)

기자분들 다들 제 잔소리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지고 뷰아 봐요~ 급하게 겨울호를 작업하느라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다음 호는 겨울 호보다 더 빠릿빠릿 짹짹하게 해서 높은 퀄리티를 보장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